

우리말 어휘의 시간을 읽다

토막

오늘의 뜻에서 옛 문헌까지

토막이라는 단어의 역사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

토막

완성된 이름

토막

출처: 국립국어원 우리말어휘역사사전

토막

한눈에 보는 기록

뜻

크고 덩어리가 진 도막.

요약 연대표

표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현재
토막				
토막				

history.wordrow.kr wordrow

오늘의 뜻

크고 덩어리가 진 도막.

문헌의 첫 기록

18세기

수록 용례

10개

수록 내용

뜻 · 표기 · 문헌

사전의 뜻풀이, 옛 표기와 문헌 용례를 함께 읽는 자료입니다.
모든 뜻과 세기의 기록을 수록했습니다.
문헌 속 한자 3자의 뜻·음과 숫자 획순을 부록에 담았습니다.

☞ 우리가 알고있는 '토막'의 뜻

국어사전 뜻풀이

사전에 수록된 오늘날의 뜻입니다. 아래 문헌의 뜻 구분은 원자료를 따르며, 오늘날의 뜻과 다를 수 있습니다.

크고 덩어리가 진 토막.

☞ 토막의 표기 연대표

표기의 변화와 공존

토막의 표기를 세기별로 모았습니다. 같은 세기에 여러 표기가 함께 쓰이기도 했습니다. 연대표는 모든 문헌 뜻의 기록을 모으며, 연결된 용례는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을 기준으로 읽습니다.

표기 · 근거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토막 사전 표기 요약	—	—	—	●→	●→	●→
토목 문헌 수록 표기	—	—	—	—	—	●→

연대표의 근거와 읽는 법

- **사전 표기 요약:** 사전의 표기 변화 요약입니다.
- **문헌 수록 표기:** 세기별 문헌에 함께 실린 표기를 더한 것입니다.
- 점이 없는 시기에도 이 말이 쓰였을 수 있습니다. 표시된 세기는 자료에 기록이 남은 시기로, 낱말이 생기거나 사라진 때와는 구분됩니다.
- 점은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의 해당 세기 용례로 연결됩니다.

시대별 주요 표기 모아보기 2종

사전의 표기 요약과 문헌 수록 표기를 모았습니다. ‘현재’는 오늘의 표제어이며 역사 세기와 구분합니다.

- 토막
18세기19세기20세기현재
- 토목
20세기

원자료의 전체 표기 목록 2종

토막, 토목

↳ 토막의 어원과 변화

이 말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사건의 어원·변화 설명

소제목은 읽기를 위한 편집 안내

📖 옛 표기와 변화

‘토막’은 18세기부터 나타나 현재까지 이어진다. 20세기에 ‘토목’도 나타난다.

📖 문헌 속의 토막

전체 용례 10개

모든 뜻과 세기의 문헌 용례입니다. 원문, 현대어 풀이와 출처를 함께 확인하세요.

크고 덩어리가 진 토막. 문헌의 뜻 · 전체 7개

18세기 토막 용례 1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토막

📖 출처 1748 동문유해 하:44ㄴ

용례 01

66 문헌 용례

木頭銼 토막.

⊖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19세기 토막 용례 3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토막

출처 1864 남원고사 1:8ㄴ

용례 02

66 문헌 용례

전반꺀치 넓게 ㅅ하 슈갑ㅅ 토막 당기 석우황이 더욱 조타.

現代어 풀이

전반꺀치 넓게 ㅅ하 슈갑ㅅ 토막 당기 성냥이 더욱 좋다.

출처 1869 규합총서 9ㄴ

용례 03

66 문헌 용례

싱션 줍이 스ㅅ로 입으로 날 거시니 그런 후에 토막 지어 구으면 마시 죠흐니.

現代어 풀이

싱션 줍이 저절로 입 밖으로 날 것이니 그런 후에 토막 지어 구우면 맛이 좋으니.

출처 1880 한불사전 517

용례 04

66 문헌 용례

토막 [木枕]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20세기 토목, 토막 용례 3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토목, 토막

출처 1908 귀의성 하:103

용례 05

66 문헌 용례

강동지가 부러진 칼 토목을 니던지며 무쇠 갓흔 주먹으로 최가의 팔뚝을 니리치니.

現代어 풀이

강동지가 부러진 칼 토막을 내던지며 무쇠 같은 주먹으로 최가의 팔뚝을 내리치니.

출처 1920 동아일보 6월 28일 3면

용례 06

66 문헌 용례

거두절미에 맛있는 가운데 토막만 남은 것이 아이라 알링이는 다 썰여 버리고 헛겁덕이로만.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21 동아일보 4월 1일 8면

용례 07

66 문헌 용례

그 토막들은 씨어 마치면 낙시새 모양으로 기다만한 장새가 될 것이었었다.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덩어리가 진 도막 또는 말, 글, 생각, 기간 따위에서 잘려지거나 떼어 낸 한 부분을 세는 단위. 문헌의 뜻 · 전체 3개

20세기 토막 용례 3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토막

출처 1906년(1-11호), 1907년(11-52호) 보감 1:369ㄱ

용례 08

66 문헌 용례

두 토막이 다 살 만하나 앞 토막이 뒤 토막보다 좀 쉽게 싱장하느니라.

현대어 풀이

두 토막이 다 살 만하나 앞 토막이 뒤 토막보다 좀 쉽게 생장한다.

출처 1917 눈물 하:28

용례 09

66 문헌 용례

이것이 은혜 갚는 것이냐 이 열두 토막을 내이고도.

현대어 풀이

이것이 은혜 갚는 것이냐? 이 열두 토막을 내고도.

66 문헌 용례

독기를 드러 통나무 한 토막을 떼기 시작한다.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세기 분류·표기·문헌명·현대어 풀이는 사전 자료 그대로 수록했습니다.
- 문헌의 연대와 세기 분류가 다른 경우에도 사전에 수록된 구분을 따릅니다.
- 용례 수는 이 사전에 수록된 예문의 수입니다.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와 구분해 읽어 주세요.

토막 관련 낱말

도막

토막의 참고문헌

사전 편찬 참고자료

별도의 참고문헌 목록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료 출처

이 자료는 ‘단어의 역사’의 낱말 페이지에 수록된 사전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원문과 현대어 풀이, 주석과 문헌명은 원자료의 표기를 따릅니다.

용례의 수는 이 자료에 수록된 예문의 수이며,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를 뜻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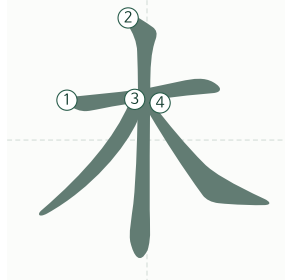
history.wordrow.kr · 토막의 뜻과 역사

한자 한눈에 보기

뜻·설명·문헌·함께 읽을거리에 나온 한자를 중복 없이 모았습니다. 획순은 한 글자의 숫자로만 표시합니다.

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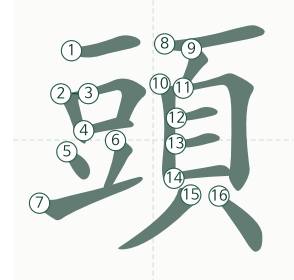
뜻·음 나무 목
총 4획 · 부수 木



hanja.wordrow.kr/한자/木/

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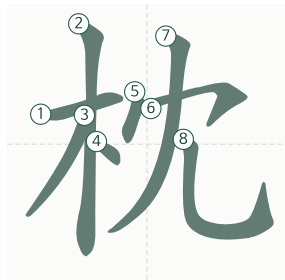
뜻·음 머리 두
총 16획 · 부수 頁



hanja.wordrow.kr/한자/頭/

枕

뜻·음 베개 침
총 8획 · 부수 木



hanja.wordrow.kr/한자/枕/